

금리 폭등에 주가하락,뱅크런 도미노... 美 국채에 '발목'

자산 절반이 '미국채' SVB 파산 이유
SVB 예금규모 1890억 달러 달해
작년 말 모기지 등 국채비중 55%
금리인상에 자금난 기업, 예금인출
통상적인 '안전자산' 기능 놓쳐

지난 주말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최우량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를 자산의 절반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채 가격하락, 짧은 시간에 이뤄진 대규모 자금인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SVB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워싱턴 뮤추얼 이후 미국에서 역대 2번째의 은행 파산으로 기록됐다. 1983년에 설립된 SVB는 기술 스타트업 분야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문은행으로 지난 40년 동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의 창문에 빗방울 사이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간판이 보이는 모습. /뉴시스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저금리, 기술 기업 호황 등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됐다. 이들은 이같은 자금을 SVB에 예금하면서 SVB 예금 규모는 2년 만에 3배로 증가한 1890억달러에 달했다. SVB는 이러한 유동성 단기 자금을 미국 국채와 30년

만기 모기지에 투자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SVB는 자산 대비 미국 국채 투자 비중이 55%에 달했다. 이는 미국 내 주요 74개 은행 중 가장 높은 비중이며, 이들 은행 평균 4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지난해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통화 긴축으로 인해 SVB

는 자금유동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미 연준은 지난해 1월 0%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올 2월 4.50~4.75%까지 13개월 만에 4.50%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술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으며, 현금 규모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예금은 감소했고, SVB가 보유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을 보지 않으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대규모 예금을 인출하자 자금 여력이 바닥난 SVB는 채권 매도에 나섰다. 미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 210억달러어치를 팔아치웠고, 이로 인해 18억달러 손실을 봤다. SVB는 채권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22억5000만달러의 신주발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국제금융거래에서 대표적 담보자산으로 활용되는 미 국채도 결국 급격한

금리인상에 유동성 저하상황을 맞고 이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안전자산 기능을 놓쳐버리는 보기도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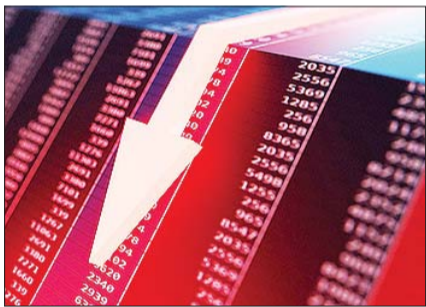
미 국채의 유동성 저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채널 예민미 재무장관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여파와 금융시장에 미칠 위협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SVB 파산의 주요한 원인은 작년 3월부터 지속적인 정책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유 채권 자산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고 이는 주가 급락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면서, 예금인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의 보유 채권에서 미실현 손실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만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 은행권의 취약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미국 은행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자사주 매입기업 절반이상, 되레 주가 하락

작년 514곳 중 283곳 3개월 뒤 하락
올 26곳 중 17곳 공시이후 주가 ↓
주주 가치 제고 위해 소각까지 하고
제도개선으로 자사주 남용 막아야



/유토이미지

최근 기업들이 주주친화 정책을 일환으로 자사주 취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기대만큼 주가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한 514개 기업 중 3개월 뒤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283개로 절반이 넘는 수준에 달했다. 기업들이 주주 가치 확대를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나섰다지만, 실질적인 주주 가치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환원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3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상장사는 63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개사의 주가는 공시 이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서 케이옥션이 공시 이후 지난 13일까지 21.04% 하락했으며 콜마비엔에이치는 19.67%가량 떨어졌다. 또한 신한지주

(-13.24%), KT(-12.37%), 하나금융지주(-10.76%) 등도 약세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는 수급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일시적인 주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 자사주 취득이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지기보다는 주주 가치 제고와 상관없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나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8년 이후 자사주 처분 공시의 처분 목적을 살펴보면 임원 성과보상 지급, 마케팅비 지급, 유동성 확보, 생산시설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 타법인 주식양수대금 지급 등 주주 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먼 곳에 활용되거나 처분을 통해 다시 유통시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이 자사주 매입안을 주총에 상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주주 가치를 제대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질 때 지배주주의 자사주 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여부가 주주환원 정책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코스닥시장위 후보에 민흥기 변호사 추천

KRX, 29일 정기주총서 위원장 선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민흥기(사진)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코스닥시장위원회 후보로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 제8차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민 변호사를 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거래소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풍부한 업무경험이 있고,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3년), 시장감시위원회 위원(3년) 등을 역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민 후보자는 1983년 고려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 감시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인 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거래소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한국거래소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민 후보자를 코스닥시장 위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영석 기자 ysl@

테슬라 주가 떨어지자, 서학개미 '줍줍'

해외주식 Click

예탁결제원, 지난주 7105만 달러 유입
美 리비안 2424만 달러, 순매수 2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인 행보와 반값 전기차 모델 출시가 늦어지면서 이달 들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 테슬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3월 6일~12일)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로, 총 7105만달러가 유입됐다.

13일(현지시간) 기준 테슬라의 주가는 전일 대비 1.04포인트(0.60%) 오른 174.4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인수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주가가 오름세로

가뒀다. 단, 테슬라의 주가는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과 2만 5000달러대 반값 전기차 모델 출시가 늦어지면서 이달 들어 15% 넘게 하락했다.

두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다. 2424만달러를 사들였다.

리비안은 대규모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리비안은 13억달러 규모의 녹색 전환사채를 2029년 만기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비안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후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반도체 수급 문제와 시장 수요 위축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학개미는 테슬라 개별 종목뿐 아니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사들이며 주가 상승에 베풀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상반기 청주테크노폴리스 2500가구 분양

SK하이닉스 등 투자에 '교통호재'

주택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상반기에만 2500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방도시가 주목된다. 도심형 첨단복합산업단지 개발이 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주인공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 투자는 물론 교통호재 등 발

전 잠재력 높은 지역으로 기업들은 물론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올 상반기 동안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마지막 3차 용지 분양을 필두로 효성, 신영, 원건설 등이 총 2440가구의 아파트를 선보인다.

청주시를 필두로 신영, 산업은행, 대우건설 등 8개 민간개발사의 공동출자로 개발하는 사업인 '청주테크노폴리스'

는 이달에 마지막 3차 용지 분양에 나선다.

이번에 분양되는 3차 사업 용지는 이전 3차 사업의 미공급용지로 상업·근린생활·준주거·노유자·주차시설이다. 이달 중 공고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후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된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지난 2008년 지구지정 후 2013년 본격적으로 조성돼 나온 복합도시로 기업체, 상업, 주거, 교육시설이 동시에 조성된다.

/이규성 기자 peace@